

새정부 출범부터 '마비'…국정공백 우려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 지연 국무회의도 못열어

김장수 실장 수석비서관 회의 불참…안보 비상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가 27일로 출범 사흘째를 맞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정운영이 초반부터 패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 신설 직위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미쳐리로 박 대통령이 인선안을 결제하지 못해 김장수 내정자가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내정자는 이날 새정부 청와대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 불참했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장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김장수 수석비서관이 오늘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안보 분야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비서관에도 참석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내각도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 지원으로 부처 장·차관이 올해 배정된

예산을 결재하지 못하면서 서민경제 행기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살리기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신설되는 미래 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의 경우,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조직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은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면서 “박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를 맞았지만 입법부의 ‘발목 잡기’로 인해 새정부의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 임명동의안이 전날 오후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는 별개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 대한 직접 압박에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증진연설회의에서 “문 전 후보는 새 정치를 하겠다고 선두에 선 분이고 뉴미디어를 포함해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하고, 생필품 가격 부당인상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장관 내정자들 인사청문회

국회는 27일 박근혜 정부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우선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기부금으로 납부한 정치후원금을 소득공제에 반영, ‘부당 세금환급’ 의혹을 산 데 대해 “실무자의 착오가 있어서 환급받았다”고 시인한 뒤, “643만원을 수정 납부했으며 제가 미처 쟁기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내정자는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에우를 방지하기에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는 새누리당 윤재우 의원의 질문에 “동의

한다”고 답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유 내정자는 “(인수위 단계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기관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적 시각으로 태도 아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조사 방법으로 전문가 집단이 조사하고 국민합의 절차를 거칠 것이다. 아니면 민관 합동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는 겸토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이어 “현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논란의 꼬리를 끊을 수 없다”며 “압정하게 점검하고 국민적 합의의 토대 아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조사 방법으로 전문가 집단이 조사하고 국민합의 절차를 거칠 것이다. 아니면 민관 합동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는 겸토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윤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해 봤더니 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며 “추진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얘기했다”고 말했다.

</div